

韓國產業의 近代化와 鑛工業

韓國產業銀行 調査部

閔丙潤

內 容

1. 産業構造의 改善 및 近代化
2. 産業近代化의 主導部門으로서의 鑛工業
3. 鑛工業發展의 方向

1. 産業構造의 改善 및 近代化

韓國의 國民經濟 다시 말해서 韓國産業은 1953年의 休戰을 契機로 해서 發展되기 始作하였으며 最近에 어서는 10年前에 比해서 顯著하게 改善되고 近代化된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休戰當時인 1953年의 國民總生産面에서 부 總體的인 産業에서 占하는 第二次産業의 比重이 12.7%이던 것이 1962년에는 20.6%로 增加되어 産業構造의 高度化 乃至는 近代化가 相當한 程度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鑛工業이 國民經濟發展을 主導하는 部門이며 따라서 總體的인 産業에서 占하는 鑛工業의 比重이 크면 클수록 産業發展의 主導基盤이 그만큼 堅固하게 되고 또한 産業의 構造가 그만큼 高度化되고 近代化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最近의 韓國産業도 從前에 比해서

相當히 高度化되고 近代化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農林水産을 包括하는 第一次産業과 電力 社會 間接資本 및 流通部門을 包含하는 第三次産業에 比한 鉦工業의 比重은 前掲한 20%總을 그다지 超過하지 못하는 低水準에 머물고 있어 總體的인 産業의 落後성과 産業의 構造의인 畸型性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産業의 後進性 乃至는 構造的인 畸型性은 國民經濟의 對外依存度의 增進, 國際收支의 逆調, 國內物資需給體制 및 價格機構의 混亂等 直接間接的인 나쁜 結果를 나타내게 하고 있다.

元來 韓國의 主要産業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農業部門이다. 아직도 農業部門의 作況이 全般的인 國民經濟活動에 미치는 影響力은 다른 어떤 産業部門보다도 크다. 그런데 農業部門의 比重이 이와 같이 크다는 事實, 다시 말하면 高度의 迂廻生産過程을 所要로 하는 鉦工業部門의 比重이 相對的으로 적다는 事實은 國內資本이 적다는 點과 從來의 戰略的이며 效率的인 産業施策이 缺如되었다는 點에 根本的으로 基因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韓國産業을 흔히 「農本國」이란 用語와 結付시킴으로써 長期的인 國民經濟發展의 基本方向을 農業增産에 농과 同時에 農林施策을 鉦工業育成施策보다 優先시키려는 境遇가 없지도 않았다. 그러나 農業이 韓國의 主要産業이라는 것은 非農業部門 特히 鉦工業의 發達이 相對的으로 뒤떨어졌기 때문이며 鉦工業의 比重을 農林業보다 크게 할 수 있는 産業構造로 改竄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絶對的인 現象은 아니다.

一般的인 後進國에서 그러하듯이 韓國에 있어서도 自主的이고 長期的인 國民經濟發展의 基本方向은 역시 鎡工業의 發達 即 工業化方途라고 할 수 있다. 特히 韓國의 農業은 營農形態의 落後性과 營農規模의 零細性等으로 말미암아 그發展이 極히 制約되어 있기 때문에 經濟發展을 爲한 主導產業으로서의 役割을 다하기에는 相當한 難點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特히 最近에 兪수복 國際經濟와의 連繫度가 顯著하게 높아지고 있음에 비추어 國際市場에서의 競爭을 勘當하면서 同時에 國內產業의 自立的인 發展을 期하기 爲해서는 말할것도 없이 鎡工業의 發展을 통한 國民經濟의 對外依存度의 輕減과 輸出増大를 企圖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見地에서 보아 앞으로의 韓國產業構造의 改善方向은 工業化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鎡工業이 다른 어떤 産業보다도 施策面에서 優先順位를 占하여야 할 것이다.

1953年의 休戰을 契機로 하여 本格的인 産業復興이란 標題를 들고 나선지 10年동안 工業化를 目標로 하는 産業構造의 改善를 爲하여 여러 모로 努力을 傾注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經濟環境은 이러한 工業化의 積極的인 推進力을 여러모로 너무나 크게 制約하였다. 元來 國內民間資本이 不足하기 때문에 1953年의 休戰과 더불어 本格化한 美國의 援助資金을 主軸으로 하여 1955년부터 紙煙工場 肥料工場 板 유리工場等의 近代的이며 大規模生産施設을 建設하기 始作하였으나 이러한 生産施設의 建設工事が 完成되기도 前에 1957년부터 財政 및 金融 兩面에 걸친 財政安定計劃에 依據한 緊

縮施策이 強力하게 推進됨에 따라 工業化過程은 當初 豫想한 바와 같은 程度로 推進되지는 못했다.

더욱이 그동안 所謂 展示效果에 의한 消費形態의 急激한 轉換과 經濟施策의 無秩序로 말미암아 民間消費性向과 消費水準은 말할수 없이 높아져서 消費와 國內生産과의 사이의 蹉跌은 더욱 커졌고 따라서 非-서비스業을 비롯한 流通部門의 相對的인 肥大와 國際收支逆調의 顕懸化라는 産業構造의 畸型的인 矛盾과 國民經濟의 對外依存度 增嵩라는 結果를 招來케 되었다.

1962年부터는 보다 積極的인 工業化를 通하여 産業의 構造的인 矛盾을 除去함과 同時에 自立的인 經濟發展의 基盤을 造成하기 爲한 目標下에 第一次經濟開發5個年計劃을 樹立하여 이를 推進하게 되었다. 그러나 同開發計劃도 역시 所要財源確保에 制約을 받아 當初計劃보다는 훨씬 그規模가 縮少되고 그時期가 遲延되는 方向으로 그計劃이 修正되지 않을수 없게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韓國産業의 實情은 工業化를 通한 産業의 構造的인 高度化가 當面한 緊要課題이면서도 可用資本의 不足과 非正常的인 消費形態때문에 이를 解決하기에는 許多한 難題가 많어 短時日內에는 그解決을 期待할 수 없는 形便에 있다. 따라서 長期的인 面에서의 産業構造改編이란 課題와 短期的인 面에서의 經濟安定이란 課題와의 適切한 調整은 이미 오래前부터 論議되어 오기는 하였지만은 앞으로는 역시 經濟 및 産業施策의 主要戰略課題가 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2. 産業近代化의 主導部門으로서의 鉦工業

産業構造上에서 一般的으로 分類되고 있는 産業部門中 第二次産業에는 鉦業과 製造業 그리고 建設業을 包含시키고 있다. 이 중에서 主導的인 成長産業은 말할것도 없이 製造業이나 最近에 와서는 鉦業의 比重도 相對的으로 훨씬 커지고 있다. 1962년에 있어서의 第二次産業의 構成을 보면 鉦業의 比重이 11.7% 製造業이 68.4%, 建設業이 19.9% 라서 製造業이 第二次産業의 約7割을 占하고 있다. 그런데 休戰當時인 1953년에 있어서의 第二次産業構成을 보면 製造業이 72.3%, 建設業이 19.4% 鉦業이 8.3% 로서 鉦業의 比重이 1962年보다 매우 적었다.

한편 지난 10年동안 代表的인 近代産業部門인 第二次産業의 量的인 發展過程을 보면 1962年の 總體的인 第二次産業의 規模(附加價値)는 10年前인 1953년에 比해서 實質(1955年不變價格基準)의 으로 162.7%가 增加하여 1953年水準의 2倍半을 넘고 있다. 이 중에서 鉦業은 307.8%가 增加하여 1953年水準의 約4倍에 達함으로써 다른 部門보다도 發展度가 높다. 이와 같은 鉦業部門의 急激한 伸長은 그 동안 石炭産業의 急速한 發展과 重石을 비롯한 黑鉛 高嶺土 등의 輸出對象部門의 頭著한 開發에 基因되고 있다.

한편 1962年の 製造業生産水準(附加價値) 198億원은 1953年보다 179.5%가 增加하여 10年前보다 約3倍의 水準에 達하고 있다. 1962년에 있어서의 建設業의 附加價値

는 60億 원으로서 1953年보다 90.1%가 增加되어 10年前보다 約2倍의 水準에 達하고 있다.

특히 製造業에 있어서는 前掲한 바와 같은 量的인 擴大뿐만 아니라 同部門內的 質的인 發展成果도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1961年에는 總體的인 製造業生産中에서 消費財工業의 比重이 73.9% 이었고 生産財工業이 26.1% 였는데 對해서 1962年에는 消費財工業이 70.8% 로 減縮된 反面에 生産財工業이 29.2% 로 增大되어 生産의 高度化現象을 明白히 나타내고 있다. 生産財工業中에서도 機械工業을 비롯한 化學工業等 重工業部門의 伸長이 顯著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1962年中 附加價值面에서의 機械工業成長率은 45.3% 로서 다른 部門보다 越等하게 그成長率이 높으며 化學工業도 역시 29.2% 의 高度成長을 이룩하여 重工業과 輕工業사이의 産業系列의 整備化 乃至는 産業의 高度化過程이 急進的으로 進展되고 있다. 消費財工業中에서도 煙草를 包含한 飲食品工業의 比重이 1961年에는 總消費財工業의 46.9% 였던 것이 1962年에는 46.1% 로 減少된 反面에 飲食品과 煙草를 除外한 其他消費財工業이 1961年의 53.1% 에서 1962年에는 53.9% 도 增大되어 消費財工業에 있어서의 近代化過程도 역시 漸進的으로 進展되고 있다.

最近에 와서의 이러한 重工業化 乃至는 産業近代化의 急激한 進展은 1962年을 起點으로 하는 經濟開發5個年計劃이 強力히 推進되고 있으며 同開發計劃이 重工業을 中心으로 하는 工業化를 標榜하고 있다는데에 크게 基因된다고 할 수 있다. 이

外에도 国内産業이 漸次 發展 되고 따라서 國際經濟와의 連繫度가 더욱 높아질뿐만 아니라 自立經濟體制를 整備하겠다는 意慾이 高調되고 있다는 點에도 重工業化現象의 主要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方今 5個年計劃事業으로 推進되고 있는 主要 重工業施設 말하자면 綜合製鐵, 綜合機械, 精油, 肥料, 發電等の 基幹工場들을 包括하고 있는 蔚山工業센터를 비롯하여 水泥, 造船, 製紙, 製鍊等 主要生産施設이 갖추어지면 工業化에로의 産業構造의 近代化는 勿論 国内經濟의 自立度도 훨씬 높아질 것으로 생각 된다. 1963年中에도 이러한 工業化過程은 從前에 볼수 없었을 程度로 急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5個年計劃에 있어서의 同年度 産業構造를 보면 第二次産業의 比重이 1962年の 20.6% 에서 21.5% 로 增大될것으로 計劃되고 있다. 따라서 国内産業에 있어서도 中小企業의 施設基盤改替를 통한 經營合理化와 國際市場에서의 競争을 勘當할 수 있을 程度의 量産體制의 整備等 全般的이며 本格的인 産業體制의 整備가 早晚間 不可避하게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豫想된다.

工業化推移 (單位: 百萬元)

	1961年		1962年		對前年 增加率 (%)	1963年		對前年 增加率 (%)
	附 價	加 值 構 成 比 (%)	附 價	加 值 構 成 比 (%)		附 價	加 值 構 成 比 (%)	
消費財工業	22,226	73.9	24,717	70.8	11.2	24,410	67.3	-1.3
飲食品	10,405	34.6	11,379	32.5	9.3	9,040	24.9	-20.6
其他	11,821	39.3	13,338	38.3	12.8	15,370	42.4	15.2

	1961年			1962年			對前年 增加率 (%)	1963年			對前年 增加率 (%)
	附 價	加 值	構 成 比 (%)	附 價	加 值	構 成 比 (%)		附 價	加 值	構 成 比 (%)	
生産財工業	7,853		26.1	10,194		29.2	29.8	11,880		32.7	16.5
化學	2,445		8.1	3,160		9.1	29.2	3,120		8.6	-1.3
第一次金屬	740		2.4	790		2.3	6.7	1,710		4.7	116.4
機械	540		1.8	785		2.2	45.3	650		1.8	-17.2
其他	4,128		13.8	5,059		15.6	22.5	6,400		17.6	26.5
合 計	30,079		100.0	34,911		100.0	16.0	35,290		100.0	3.9

- 註：1) 飲食品은 煙草包含
 2) 機械는 電氣機械器具와 輸送用機械器具를 除外함
 3) 1963年은 5個年計劃數值임

前記한 바와 같이 1962年을 起點으로 하는 5個年開發計劃의 推進과 더불어 國內製造業도 質的으로 劃期的인 發展을 期하는 段階에 있다. 1963年現在 國內 主要 製造業 生産品目的 施設能力을 보면 消費財工業部門에서 精糖이 年間246千 M/T, 小麥粉이 902千 M/T, 綿織物이 267百萬平方碼, 綿絲 148百萬封度, 新聞用紙 38千 M/T, 自動車타이어 300千本等이며 生産財工業部門에서 尿素肥料가 170千 M/T, 水泥가 720千 M/T, 板유리 500千 C/S, 銑鐵 64千 M/T, 鋼塊 72千 M/T, 鋼棒 100千 M/T, 自轉車 210千臺等으로 되어 있다. 이中에서 水泥, 肥料, 板유리等의 基幹工場은 美國의 援助資金에 依해서 이루어졌고 鋼塊, 鋼棒等은 政府의 財政資金에 依해서 이루어 짐으로써 生産財工業의 質的인 發展이

相當한 程度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主要生産財工業分野인 機械工業과 化學工業은 매우 脆弱하여 國內聯關産業分野에서의 機械 및 化學工業製品의 需要를 充足시키기에는 아직도 遼遠하다. 現在 比較的 大規模的인 朝鮮機械製作所와 紡織機械, 揚水機, 小規模의 發動機等を 主要生産品目으로 하는 群少工場이 散在하고 있기는 하나 그生産品目は 前掲한 바와 같은 輕工業에 屬하는 單純한 製品에 不過하며 重工業에 屬하는 主要生産財生産手段은 전혀 生産되지 못하고 있고 國內所要量の 거의 全量을 海外導入에 依存하고 있다.

또한 化學工業에 있어서도 基礎化學製品인 硫酸, 鹽酸, 硝酸等の 酸性製品과 苛性소-다, 소-다灰等の 알카리性製品の 生産은 거의 없는 形使이어서 이들 製品の 供給은 전적으로 海外導入에 依存하고 있다. 또한 近代的인 成長産業으로서 注目視되는 精油産業은 5個年計劃事業으로 推進中에 있을뿐이며 既存施設은 전혀 없는 實情이다. 特히 最近에 와서 石油의 精製에서 얻어지는 副産物인 液化가스, 메타놀, 에탄, 水素, 푸로판等이 新規化學製品の 基礎原材料가 되어 있고 따라서 石油産業이 總體的인 工業部門의 主導的인 成長産業의 位置를 占하고 있다.

이와 같이 韓國의 工業構造는 各種 消費財工業이 一方的인 發展過程을 걸어온데 對해서 이와 隨伴되고 聯關되어야 할 生産財工業은 그發展度가 매우 遲遲하여 工業內部自體의 構造的인 畸型性은 말할것도 없고 總體的인 國內産業構造의 畸型度を 높이고 있다.

이러한 結果는 前述한 바와 같이 主要産業施設機材를 비롯해서 各種 原資材의 導入依存度를 漸次 높이고 있다. 經濟企劃院調查에 依한 工業部門의 業種別 原料輸入依存度를 보면 食品工業이 36.4%, 製紙가 51.8%, 紡織이 43.7%, 運輸機械 및 器具工業이 45.2% 등으로 比較的 높고 製材工業이 7.6% 機械工業이 6.5% 등으로 比較的 낮게 評價되고 있는데 이는 算出期間을 1959년부터 1966년까지로 하고 이 동안의 輸入代替産業을 包含시키고 있기 때문에 現實情에 比해서 過度하게 低評價되었다는 것은 疑心할수 없는 事實이다. 1962年中 工業用主要 原資材導入實績을 보면 纖維類가 約5千萬弗, 生 고무 585萬弗, 木材 1,844萬弗, 팜프 800萬弗, 油脂 385萬弗, 化學製品 3,200萬弗, 織物用絲 2,880萬弗, 卑金屬 2,943萬弗 등으로 되어 있고 이中에서 纖維類, 生 고무, 팜프 등은 国内需要全量을 導入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와 같은 工業用 原資材導入依存도는 国内消費財工業이 發達하면 할수록 그리고 또한 消費財工業과 生産財工業과의 사이의 發展度の 乖離가 크면 클수록 더욱 높아져서 最近에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은 外換危機를 助長하여 國民經濟活動面에 더욱 큰 支障을 招來하게 된다고 할수 있는데 이러한 現象은 이미 1963년에 들어서 繼續 나타나고 있다.

3. 鈹工業發展의 方向

앞에서 韓國産業 乃至는 工業의 構造的인 矛盾을 개략적으로

고있다. 現在 5 個年開發計劃과 聯關되어 推進中에 있는 主要事業 卽 現代建設의 年産 紙멘트 15 萬 M/T 規模의 生産施設 韓一紙멘트會社의 紙멘트 40 萬 M/T 生産施設, 雙龍洋灰의 40 萬 M/T 生産施設等을 비롯해서 三洋紙業의 年産 pulp 7,500 M/T, 三豊製紙의 新聞用紙 12,000 M/T, 豊農肥料의 燒肥 54,000 M/T, 韓國精機의 力織機 3,000 臺 및 加工機 30 臺, 培昌工業의 各種 紡織機類 54,000 臺, 씨알自動車의 大中型自動車 5,000 臺, 等의 各種 生産財生産施設과 興韓化學纖維의 年産 5,400 M/T 規模의 비스코스人絹絲工場, 韓國苧麻의 240 萬 100g/l 苧麻絲生産施設等의 原資材生産施設이 完成되면 生産財工業의 基盤增強을 통한 産業構造의 高度化 乃至는 近代化가 相當한 程度로 이루어질 것이다.

韓國産業發展의 長期的이며 基本的인 方向은 第二次産業部門의 主導的인 成長이라고 할수 있으며 그中에서도 特히 重工業의 勃興을 통한 工業部門의 施設基盤을 整備한다는 것이 基本的인 問題라고 할수 있다. 이와 같이 工業基盤을 整備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큰 制約要因은 龍大한 所要資本의 調達難이라고 할수 있다. 方今 推進中에 있는 第一次開發計劃도 이에 所要되는 資本量의 相當部分을 外國借款에 依存하고 있으나 外資導入이 國內外換保有事情의 惡化와 內資動員의 不如意 製造技術의 低位, 經營形態決定的 困難性等으로 因하여 當初 豫想한 바와는 懸隔한 蹉跌을 나타내는 結果를 招來하고 있다.

그러므로 工業化를 통한 産業構造의 改善을 民間資本보다는 오히려 政府財政을 통해서 마련되는 財政投融資와 支拂保證等의

形式이나 또는 直接的인 形式의 政府에 依한 外資導入이 그 主軸的인 財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重工業에 屬하는 生産施設은 그 單位規模가 比較的 大規模이고 따라서 所要資本量이 比較的 尠小하여 民間資本으로서는 擔當하기 어렵기 때문에 國家財政에서 이를 充當하기 不濟인 實情에 있을뿐 아니라 國內産業의 長期的이며 均衡的인 自立體制을 期하기 爲해서는 産業體制整備의 主權力을 民間部門보다도 政府에서 調節引導하는 것이 보다 効率的이라고 할 수 있다. 國家財政을 통한 工業化의 財源 調達問題에 있어서도 어느 程度의 「인플레이」 財源에 依한 調達은 韓國의 現實情에 비추어 不可避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國內資本蓄積에 있어서 主要한 役割을 擔當한 것이 政府의 인플레이 財源에 依한 財政投融資이었을뿐 아니라 이 投資에 依해서 마련되는 生産能力, 即 施設基盤의 物資供給增大를 통한 인플레이 抑制效果를 아울러 勘案한다면 設備備置工事期間中에 일어날 수 있는 어느 程度의 인플레이 效果를 부담쓰고라도 産業復興을 爲한 所要財源을 어느 程度까지는 인플레이 方途에 依存하지 不濟인 實情에 있다고 하겠다.